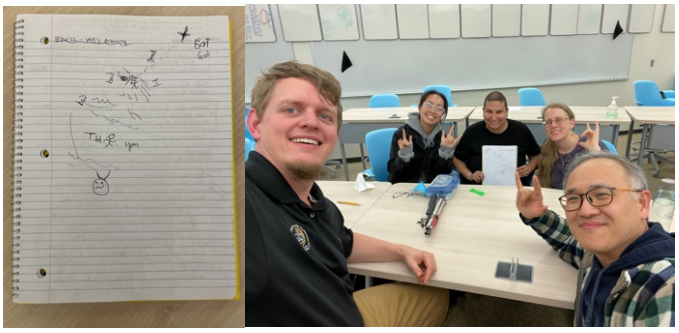
주님의 은혜로 평안하세요?
요즘 날씨가 많이 무덥지만 하늘을 보면 기분이 좋아지는 여름 잘 보내고 계세요?
가족과 함께 수박보다 더 시원한 여름을 보내시길 기도합니다.



작년과 같이 지난 봄학기에도 코로나 펜데믹 가운데 학교 규칙을 지키며 매주 월요일 기도모임과 목요일 BCF 찬양과 예배를 학생들과 함께 드렸습니다. 대면수업에 참석한 학생들 가운데 여러명과 수시로 만나서 교제하고 점심시간에 제 사무실에 몇명 국제학생들과 함께 식사하기도 하고 쉬는 시간에도 사무실로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교제하였습니다.

Ali 자매의 이야기

매주 목요일 밤에 드리는 BCF(Bison Christian Fellowship) 예배에 농맹인 "Ali" 자매가 가끔 다른 농맹인 자매와 함께 오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예배가 끝난 후에 Ali 자매를 위해서 촉수어(농,맹 이중장애인을 위한 수어)로 통역해주는 다른 그리스도인 Carrie 자매(농교육학과 석사, 청인)와 Michelle 자매(수화통역학과 학부, 청인)가 Ali 자매에게 촉수어로 전도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뒤에서 Bruce 목사님과 같이 기도하며 기다렸습니다. 약 20분- 25분 후에 Ali 자매가 예수님을 영접하겠다고 하는 말을 듣고 우리는 기뻐하며 그 자매에게 예수님을 믿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더니 "네 믿습니다" 라고 답을 하여 그 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함께 기도했습니다. Ali 자매가 기숙사로 혼자 돌아가고나서 전도했던 두 자매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성령님께서 크게 역사하심을 알수있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미국 워싱턴 D.C에서, 특히 갈로뎃대학에도 동성애 옹호자들과 동성애자들이 많아서 저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LGBT (게이, 레즈비언, 양성애자, 트렌스젠더)와 같은 잘못된 성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을 종종 만날 수 있는데 Ali 자매도 농맹인이면서 생물학적으로 여성이지만 자기의 성 정체성은 남성이라고 여기고 있기 때문에 처음 Ali 자매를 만났을 때 그녀가 자기자신은 여자가 아니고 남자라고 저한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녀를 지칭할 때 She나 He를, 목적어로 her나 him이란 단어를 쓰지 않고 그냥 그녀의 이름 "Ali" 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 두 자매들이 전도할 때 종이와 연필을 가지고 하나님과 사탄 가운데 사람이 서 있는 그림을 그리면서 "우리가 죄인이라서 모두 지옥에 가서 영원한 형벌을 받을 마땅한 인간이지만 오직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하면 영생을 얻어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라고 복음을 설명하였더니 Ali 자매가 "내 마음에 어두운 면이 있다 사탄이 거기에 있다"는 말을 하여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이어서 예수님을 믿으면 Ali 자매의 어두운 죄의 사슬에서 해방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예수님을 믿도록 전도했답니다. 정말 하나님께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예배시간마다 다른 농맹인(DeafBlind) 자매와 같이 다니고 있습니다. 담배를 오래동안 피우던 사람이 담배를 끊기가 어려운 것처럼 아직도 혼란한 성 정체성 상태에서 건강하게 벗어나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을 전하고 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님께서 오셔서 혼동된 정체성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중보기도를 부탁드립니다.

James 형제의 이야기




James 형제는 농맹인(Deafblind)이고 서 있으면 몸이 흔들려서 혼자 걷기에 불편해서 보조기구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평형감각장애를 갖고 있는 중증장애인입니다. 처음 미국에 와서 BCF 사역을 시작 했을 때 갈로뎃대학교 대학원에서 행정학 전공으로 공부하고 있는 James 형제를 만났습니다. BCF 예배시간에 그로부터 촉수어를 조금 배웠습니다. 그 형제가 2020년 여름에 졸업하여 플로리다주에 있는 고향지역으로 돌아갔는데 코로나 펜데믹으로 인해 취업 하기 어려워서 집에서 1년반정도 머물렀습니다. 2021년초에 중국선교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어 약 2 개월정도 매주 토요일마다 Jullie 자매와 함께 중국수어와 기초중국어를 Zoom 온라인으로 가르쳤습니다. 올해 갑자기 James 형제가 보모님의 도움없이 혼자 살기로 결심해서 이사를 한다고 Bruce 목사님과 저에게 연락을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반갑기도 하지만 속으로 "James 형제가 혼자서 어떻게 먹고 살 수 있을까?" 라는 걱정이 더 들었습니다. 워싱턴 디씨 공항에서 큰 두 가방과 함께 온 그를 맞이하며 Ben 형제의 집으로 태워주었고 필요한 가구들과 필요한 식품을 찾는 중에 ALDI의 Yu 대표님께서 James에 대한 소식을 듣고 본인이 다니고 있는 중국교회에 요청해서 중국성도들 중에 사용하지 않는 침대와 책상가구들을 기증받아 James 형제의 방으로 옮겼습니다. 작년에 Pill 형제를 통해 알게 된 Ben 형제의 집에서 월세로 살고 있습니다. 차량이 필요한 목요일 밤 BCF 예배시간, Bruce 목사님이 시무하는 교회 주일예배, 수요일 밤 성경공부를 참석하기 위해서 가끔 제가 차로 태워 주기도 합니다. 제가 하지 못할 때는 시청에서 제공하는 장애인 서비스를 이용하기도 하고 Jullie 자매가 가끔 도와주고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James 형제가 혼자 할 수 있는 것들은 스스로 하고 하기 어려운 일들을 위해서 더 노력하는 모습이 정말 존경스럽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머가 풍부한 그는 자신의 대학원시절에 국회의사당에서 인터쉽을 하고 봉사활동을 했던 경험들, 정치, 법에 대해서 아주 재미있게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문제는 James 형제가 법이나 정치 관련 전문용어를 미국수어로 스펠링을 쓸 때마다 알아볼 수 없었도 그냥 아는 것처럼 끄덕거린다는 의미로 그의 어깨를 툭툭 손으로 자주 치기도 했지만 대화는 늘 즐거웠습니다. 때로는 그의 고민을 들어주기도 했는데 그럴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James 형제의 덕분에 농맹인 친구들과의 만남의 기회를 가졌습니다. Metro Washington Association of the DeafBlind(MWADB)에서 주최하는 친교행사를 통해 워싱턴 지역(DMV region- Washington DC, Maryland, Virginia)에 살고 있는 약 20명 농맹인들과 약 30명의 촉수어를 통역하는 농인들과 청인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한 명의 농맹인을 위해서 옆에서 촉수어로 통역하는 한 사람 이렇게 두 사람씩 한쌍으로 동행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놀라운 사실은 협회의 회장으로부터 임원들까지 모두 농맹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중에 James 형제가 그 협회에 참석하는 아는 농맹인들이 대부분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말에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저는 촉수어를 기본적인 것만 배워서 간단한 내용들만 통역할 수 있지만 농맹인들의 복지 관련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하려면 갈로뎃대학교 수어통역학과에서 전문 촉수어 통역방법과 이론 및 훈련프로그램을 포함하여 배울 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갈로뎃대학교 캠퍼스사역과 농아선교 사역을 할 때 상황이 여의치 않아 농맹인까지 다 사역을 하지 못하니 대신에 James 형제가 그 지역의 농맹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으로 인도하는 귀한 사람이 되면 좋겠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농맹인들의 친교행사 모습, https://youtu.be/mnta4ldj_aU)

나머지 사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봄학기 중 기말고사 시작 이전에
목요일 밤 BCF 예배를 끝나고 피자를 먹으며 진심어린 우정과 사랑으로 소통하고 여름방학동안 의미있게 잘 지내며 가을학기에 건강하게 만나기를 함께 기도했습니다.



갈로뎃대학교의 교환학생(일본 형제 한명), 어학생들(프랑스 자매 두명, 일본 자매 한명), 학부생(보츠와나 형제 한명)들이 본국으로 귀국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교제나누는 모습.



이번 여름방학 중에 유 대표님이 갈로뎃대학교 국제학생들(이라크 1명, 인도 2명, 중국 3명, 보츠와나1명)을 BBQ파티에 초대하여 재미있고 즐거운 교제를 가졌습니다.





보츠와나 출신이며 기독교 가정에서 자란 학부 생물학과를 전공한 Dikhumo 학생은 보츠와나 정부에서 전액장학금을 받아 J-1비자로 온 유학생이었습니다. 학교 식당이나 제 사무실에서 수시로 만나서 개인상담을 하기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격려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BCF 예배시간에도 중간이나 기말고사기간 외에는 열심히 참석하며 믿음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육상선수, 영어과외, 사무실 아르바이트를 할 줄 아는 귀한 인재로서 얼마나 성숙한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아쉽게도 코로나 펜데믹으로 인해 학교내의 안전규칙에 따라 지난 5월 졸업식때 가족외에는 참석자가 제한이 되어서 직접 축하하지 못했고 대신 라이브방송을 보고 축하문자를 보냈습니다. 졸업식 후에 개인적으로 맛있는 식사를 대접하고 앞으로 자기 나라에서 농아학교 교사, 아니면 기독교 비영리기관에서 취직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보츠와나의 농교육, 농복지를 위해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봉사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라고 격려하며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제목

1. 9월에 농아국제성경학교를 온라인으로 시작합니다. Ron 목사님과 함께 강의를 준비하고 서로 이해하고 깊게 소통하기 위해서 제한된 소수의 9-10명 농인들에게 잘 가르칠 수 있도록 영육간 강건하고 지혜를

주시도록

2. ALDI 선교사역과 캠퍼스 사역을 통해 국제학생들과 중국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들로 하여금 오직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나갈 수 도록
3. 올해 가을부터 현우가 5학년에 올라가고 또 현도와 현성이 공교육의 시작인 유치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세속적인 세계관에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설 수 있도록
4. 한국에 계시는 부모님과 장모님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늘 건강하시고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도록



제9차 한인세계선교대회 참석하며...

2022년 8월 이주영.조윤미 선교사